

“여, 민생 위해 협치하고...야, 분열 말고 단합하라”



고향의 정 안고 다시 일터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가족들과 연휴를 보낸 귀성객들이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비전 없는 극한대치 피로감 호소 이대표 영장 기각 민주당 쇄신을

추석 연휴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민생 해결과 정치적 비전 제시 없이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역민들은 호남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 안팎의 내용과 분열에서 벗어나 단합과 재정비를 통해 거대 야당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민생 정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 여당에는 민생 경제를 위한 협치를, 지역 정치권에는 대안세력 활성화를 통한 쇄신 등을 바라는 다양한 의견 등이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의 화제였다고 정치권은 전했다.

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지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분노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은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가결 사태’로 민주당이 분열해서는 안되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으로 싸우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

장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지역민들의 안도감이 느껴졌다”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질타와 함께 이 대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많았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 예결위위원장은 “농촌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 비축과 구매물량 가격에 관심이 많았고, 섬 지역은 주민 이동권 보장 확대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시장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컸다”면서 “정부 여당의 폭주에 대한 제1야당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지역민심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 지역민심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한 향후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들이 여론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당 대표와 단합해 현 정권의 국정 파탄을 바로 잡고, 특히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인하 무인적 장관 임명,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쪽에 치우친 정부 외교 등에 대응하려면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정부의 삼권 분립

훼손과 일방적 국정 운영 등을 우려하는 민심이 주를 이뤘고, 때아닌 이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고 말했다.

이용민(광주 광산갑)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진영을 재정비해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나 폭주하는 현 정부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힘겨운 민생을 살피달라는 민심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민심을 갈라치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협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정치에 집중해달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위원장은 “민주당 독점 구조인 지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꼭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한 석이라도 확보해야 지역 정치가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지역민들이 당부하셨다”고 강조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여야가 협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안타깝다고 많이들 얘기 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는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민생 회복에 힘을 쏟을 것을 우리당에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경기불황 속에 거대 여야간 싸움이 지겨우니 정의당이라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주민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이건 음악회’ 초대권 독자에 무료 배포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4중주단
1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공연
오늘부터 광주일보사에서 배부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4중주단

광주일보사가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는 제34회 ‘이건 음악회’를 후원하며 초대권을 독자 여러분에게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건 음악회는 문화·메세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건(EAGON)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민들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입니다.

음악회 34주년을 기념해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파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을 초청, 10월 17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연주 레퍼토리

는 드뷔시의 ‘현악 4중주 G단조’, 하이든의 ‘현악 4중주 F단조’,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등입니다.

관람권은 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국에서 선착순(1인 2매) 배부합니다.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기온 ‘뚝’ ... 아침·저녁 쌀쌀해요

광주·전남 일교차 커 건강 조심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광주·전남지역에는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4-5일 맑은 가운데 구름이 자주 끼겠다”고 3일 예보했다. 다만 4일 밤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5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5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광주·전남지역은 4일 낮 최고기온 23-25도를 보이고, 5일 아침최저기온 10-16도·낮 최고기온

은 19-21도에 분포해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오후부터 전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순간풍속 초속15m)이 부는 곳도 있었다. 특히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일부 전남해안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큰 폭을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1조원 PF 조달 완료 ▶2면
- 아시안 게임 - 안산·안성영 금메달 순항 ▶18면
- ART 투어리즘 - 나혜석거리·백남준센터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지능형 전력시스템분야] 지원사업안내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시험·평가 인프라 지원을 기반으로 지능형 전력시스템 산업을 육성하는 20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한국전지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광기술원(KOPTI)에서 기보유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지능형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에서 시스템까지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에 기술지도/시험·평가/시작품 제작 등에 대한 인프라 지원

기술지도
지능형 전력시스템 산업분야의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제품설계에서 개발과정까지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 전문연구기관: 한국전지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광기술원
시험·평가
전문연구기관의 장비 인프라 기반으로 지능형 전력시스템 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특성분석, 성능평가, 전자기적합성·신뢰성 시험평가 등의 역량강화 지원
시작품 제작
전문연구기관이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험장치, 필터, 인터페이스 등 제품 성능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작품 지원

기업지원

세부 지원명	지원규모		지원금액산정기준	수행기간
	광주	전국		
① 기술지도 지원	70%이내	30%이내	수행기간 내부분문가 우선 외부전문가 50만원/1일,5일이내	KERI KETI KOPTI
② 시험·평가 지원	70%이내	30%이내	각 기관 규정에 따른(KERI, KETI, KOPTI)	KOPTI
③ 시작품 제작 지원	1천만원 이내		2개/년 기관이상 시험평가시 선별(12번지원시 가능)	KERI

* 상시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개월, 시제품 지원시 6개월(‘23.12.31.까지)

지원대상

기술지도	지능형 전력시스템 부품 및 시스템 분야
시험·평가	지능형 전력시스템 부품 및 시스템 분야
시작품제작	기술지도/시험·평가 지원 대상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시작품제작 지원은 기업당 한개 가능

지원내용 아래의 지원항목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애로기술부터 시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기술지도	시험·평가	시작품 제작
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기획, 설계, 아이디어 상담 기타...	지능형 전력시스템 부품, 기기의 실증, 시험·성능평가 인프라 지원	지능형 전력시스템 부품, 기기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작품 직접지원(그림, 필터, 기타)
17가지 이상을 포함할 때 지원가능		
KERI 한국전지연구원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OPTI 한국광기술원
- 분산자원(태양광, 배터리,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관련 기술지원 - 분산자원 연계기술 및 신뢰성 시험 평가 - 단일 전력변환기(PCPS) 성능개선, 시험 평가 - 전력시스템 계통연계 운영 및 신뢰성 평가 - 전력시스템 통신 및 운영시스템 성능시험 (EMS, BMS, 기타.)	- 전력시스템 관련 제품의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 등 기술 지원 - 기업별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전문가 매칭 - 전력시스템의 전자기 적합성·성능 평가 - 개발단계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전파파 내성 시험	- 데이터 기반 분산자원 연계 기기의 운영분석평가(고장진단 및 분석기술) - 전력망 부품, 모듈, 기기 및 시스템의 전기적 성능 및 전파 시험평가 - 전력망 IoT 기기의 유무선 통신 시험평가 - 에너지 광용량 제품용 ICT 융합제품 인증 시험평가 - 전력 및 광용량 제품 관련 소자 부품의 품질, 특성 분석 및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지도 시험·평가 시작품	기술지도 시험·평가	기술지도 시험·평가